



## 자녀의 마음을 알면 이해가 깊어집니다.

청소년의 특성을 알고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때, 자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 
자녀의 속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때,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.

##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

### 1. 자녀와 대화가 잘 안 될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.
-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.
- 나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주길 원합니다.

### 2. 자녀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부모의 이야기를 잔소리쯤으로 생각하고 '내가 알아서 한다'고 생각합니다.
- 왜 고쳐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거나, 고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합니다.
- 현재의 내 모습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.

### 3.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속으로 미안하면서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.
-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해합니다.
- 컴퓨터, 오락 등 공부와 무관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.

### 4. 자녀가 무기력해 보일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실패가 두려워 어떤 시도도 하기 어려워합니다.
-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
-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.

## 5.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답답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.
- 부모나 친구, 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원합니다.

## 6. 자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존중받길 원합니다.
-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믿으며 함께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.
-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

## 7. 자녀가 컴퓨터에 몰입할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컴퓨터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갖고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.
- 채팅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.
-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하길 원합니다.

## 8. 자녀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

⇒ 이럴 때 자녀는...

- 부정적인 감정이 나갈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
- 때론 정말 이유 없이 화가 나서 ‘왜 화 내냐?’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.
- 이해받고 싶어 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.

‘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’ 부모교육지침서 중에서

